

문화부 기자의 기쁨과 슬픔



1 중앙일보

홍지유 기자



2024년 1월26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카페에서 온 포세(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만났다. 장발인 머리를 묶고 목에는 진화색 스카프를 두른, 유명한 프로필 사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성인 독서량이 OECD 꼴찌, 전 세계 166등인 나라에서 책과 관련한 일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문화부로 발령받은 후 가장 적응이 어려웠던 것은 네 자리의 조희수였다. 아무리 공들여 기사를 써도 조희수는 2000에서 3000 사이를 지루하게 오갔다. ‘빅샷’을 인터뷰하면 달라질까 싶어 노르웨이까지 날아가 노벨문학상 수상자 인터뷰를 했지만 고작 2400명이 읽었다. 온 포세가 한국 언론과 하는 최초의 단독 인터뷰였지만 사내에서 상을 받기는커녕 입후보도 못했다.

인터뷰이를 섭외하고 기사를 작성하

는 데 들인 노력은 기사 주목도와 별 관계가 없다. 오히려 ‘충격’, ‘OO녀’, ‘상간남’ 같은 자극적 키워드가 들어간 가십 기사에 공들인 기획이 묻히는 경우가 허다했다. 2400명의 작고 소중한 독자님이 온 포세 인터뷰 기사를 읽은 날, 비슷한 시간 출고된 ‘만취 벤츠녀 DJ 예송, 옥중 사과’ 기사를 읽은 사람은 50만 명이었다. 만취 벤츠녀의 근황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온 포세의 작품 세계를 탐구하려는 사람보다 200배 많았다.

그 ‘현타’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 사회부 또는 경제부 기자들은 10만, 100만 단위의 조회수에 익숙하다. 사회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각 일어나는 사건

을 다루는 부서다. 정치나 경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첫 재판’, ‘엄마 앞에서 딸 죽인 30대 스토킹범 우발 범행 주장’ 기사는 읽는다. 경제부는 금리나 주식 시황 같은 통장 사정과 직결되는 이슈를 다루기에 고정 독자층이 탄탄하다. 그에 비해 취향을 타는 문화부 기사의 조회수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댓글도, ‘좋아요’도 없는 기사 페이지를 보며 나는 ‘무해무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사실 블로그만큼도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기사를 쓰는 게 어떤 의미일까. 디지털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자괴감을 느꼈다.

문학 기사가 특히 그랬다. 백만, 천만 관객이 보는 영화나 유명 OTT 드라마는 트렌드를 좇기 위해서라도 봐야했지만 문학 소비는 사고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출판사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면) 어떤 책을 읽지 않았다고 대화에 끼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눈물의 여왕’을 봤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많아도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유고작을 읽었냐고, (올해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철도원 삼대는 어땠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애초에 2만부만 팔아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문학이었고 문학 기사를 쓰는 것이 내 일이었다. 국내 순문학 독자가 2만명이라고 하니, 문학 기사는 2000명만 봐도 선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슬펐

지만 위로가 됐다.

페이지뷰의 노예였던 내 생각을 바꾼 건 온 포세와의 만남이었다. 그 인터뷰를 한 뒤로 조회수에 덜 연연하게 됐다. 더 정확하게는, ‘얼마나 많이 읽혔나’보다 ‘누구에게 읽혔나’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구 반바퀴 돌아 ‘뺨치기’ 수다

유명 작가, 특히 해외의 유명 작가를 섭외할 때는 큰 기대를 품지 않는다. 공들여 쓴 이메일이 ‘읽씹’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2023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노르웨이 작가 온 포세의 에이전시에 연락을 하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노르웨이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다는 작가 아닌가.

가뭇에 콩나듯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풀릴 때가 있는데, 이날이 그날이었다. 이메일을 보낸 지 하루도 안 돼 ‘칼답’이 왔다. 아예 인터뷰 날짜와 장소까지 못박은 채였다.

한 달 뒤 노르웨이 오슬로로 날아가 한 미술관 1층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 3분 전까지 그곳에 손님이라곤 나 혼자였고, 밝은 눈이 폭폭 내렸고, 목을 빼고 창문 밖을 살펴도 재미 한 마리



2024년 1월26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서점에 2023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는 안내문과 함께 온 포세의 작품이 진열돼 있다.

지나가지 않았다. 사칭 사기를 당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 잠깐, 검찰도 경찰도 아닌 문학 에이전트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창문 밖으로 백발의 노신사가 보였다. 장발인 머리를 묶고 목에는 진회색 스카프를 두른, 유명한 프로필 사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커피 두 잔을 시키고 90분을 이야기했다. 문학으로 시작해 유튜브 구독 채널(그는 만년필 장인들의 채널을 구독한다고 했다), 노벨상 뺨치기, 술버릇으로 이어진 대화였다.

문학이 뭔지, 인생이 뭔지 하는 이야기보다 기억에 남는 건 그의 노벨상 수상 실패 후일담. 지난 몇 년간 노벨상 ‘유력 후보’로 거론된 만큼(사실 노벨상에는 공식 후보가 없다) 수상자 발표 당일 노르웨이 기자들이 그의 집 앞에 진을 쳤단다. 그가 베르겐에 있을 때는 베르겐까지 기차를 타고 와 노벨상 ‘뺨치기’를 했다는 거다.

한국 기자들도 한국 작가가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면 그 집 앞에서 발표를 기다린다. 그 작가가 상을 받으면 미리 수상을 가정하고 써 둔 기사에 즉석에서 탄 소감

두어 문장을 추가해 즉시 출고한다. ‘나 가리’가 되면 남은 기자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왜 유명한 문학상은 죄다 시차가 극악인 유럽에 몰려 있어 새벽까지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가 한탄한다. 그리고 내년을 기약하며 헤어진다.

그는 멀리서 찾아온 기자들을 공치게 하는 것이, 그것도 10년 가까이 매년 그랬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그 기자들은 기사가 킬 돼서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한국 기자들도 작가 집 앞에서 발표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가 보일 듯 말듯 웃었다.

노르웨이도 별거 없네요

작품 세계의 변천사가 어떻고, 문학의 미래가 어떻고 하는 무거운 이야기 위주로 기사를 썼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건 예를 들면 이런 대화다.

사람들이 알아봐서 불편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사람들이 문학에 별 관심이 없어 유별스럽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했다. “윤 포세라는 이름은 알려졌지만 길 가다 붙잡혀 싸인을 하는 일은 없다”면서, 그리고 보니 그와 만나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카페 안에 있던 누구도 그에게 인사를 청하거나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성인 1인 독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노르웨이에서도 작가가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긴 어려운가 보다.

과거 중국의 노벨문학상 작가 모옌을 인터뷰했을 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 그는 수상 직후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이 흐려졌는지 아니면 이 상이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게 됐는지 모르지만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대단치 않은 일이 된다는 말이 노벨문학상 수상 같은 업적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터다. 그의 서면 답변을 두고두고 읽었다.

‘보람충’을 움직이는 법

한국에 돌아와 인터뷰 기사를 냈다. 예상했던 대로 ‘폭발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폭발은 커녕 ‘그래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데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조회수가 폭망했다. 여기까지는 문학기사의 일반적인 생산-소비-폭망-좌절 사이클이다. 상황이 달라진 건 몇 통의 이메일 덕분.

안녕하십니까? 윤 포세 선생 인터뷰 기사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시와 소설, 음악이 어우러져 문학을 이루

어간다는 말씀은 오늘의 디지털 AI 시대에 깊이 귀기울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문학을 회색에 비유한 홍 선생의 탁견도 훌륭하십니다. 모든 좋은 문학은 아마도 회색빛을 띠 것입니다. 홍 선생의 문학기사가 갈수록 즐겁군요. 책의 문학이 회의되는 시대에 감사합니다.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앙일보 독자 박OO입니다.

신문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귀한 소식과 주옥같은 인터뷰 기사도 못 읽었겠지요?

방금 윤 포세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과* 윤 포세의 견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수첩에 기록했지요.

(그 마지막 질문과 답을 소개한다.)

Q.재미있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다. 왜 문학을 읽어야 하나.

A.문학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다. 인생을 탐구하기 위해 읽는 것이 문학이다.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찾는다면 문학 외에도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인간의 삶과 죽음을 탐구하는 데는 문학만큼 탁월한 것이 없다. 좋은 문학에는 진리와 아름다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라도, 책을 뛰어넘는 의미는 없다고 믿어요.

그 의미를 발견해가다보면 문학만큼 재미있는 세계도 없고요.

노르웨이 오슬로 시내의 한 카페에서 윤 포세와 인터뷰하셨던 순간은 홍지유 기자님께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진리와 아름다움이 담긴 기사를 읽고 나서 저도 덩달아 기쁜 마음이 스며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동료들과 자조 섞인 대화를 나눌 때 ‘보람충’이라는 단어를 썼다. 타끌만큼이라도 세상을 좋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언론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돈은 없지만 가오가 있는’ 의 세계에서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세계로 건너온 데 따른 자조였다. 자발적 초과노동과 뺨치기를 하는 선배들을 보며 그들이 돈이 아닌 보람을 좇은 끝에 얻은 것이 기레기라는 멸칭임이 슬펐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공명심만 자극할 수 있다면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 쉽고 싸게 부릴 수 있는 인력이라는 자조적 의미로) ‘보람충’이라고 부를 때 나는 생계형이라고, 나는 돈 때문에 일한다고 했다.

이 두 통의 이메일을 읽고 0으로 수렴하던 근로의욕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며 깨달았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또한 보람이었다는 걸. 그저 몇 통의 이메일이면

노벨문학상 받은 은 포세
삶·죽음 탐구하기 위해 독서해야
뮤지션 꿈꾸며 작사하다 소설가
가사 반복으로 리듬 만들어내듯
글도 그렇게 써야 한다고 믿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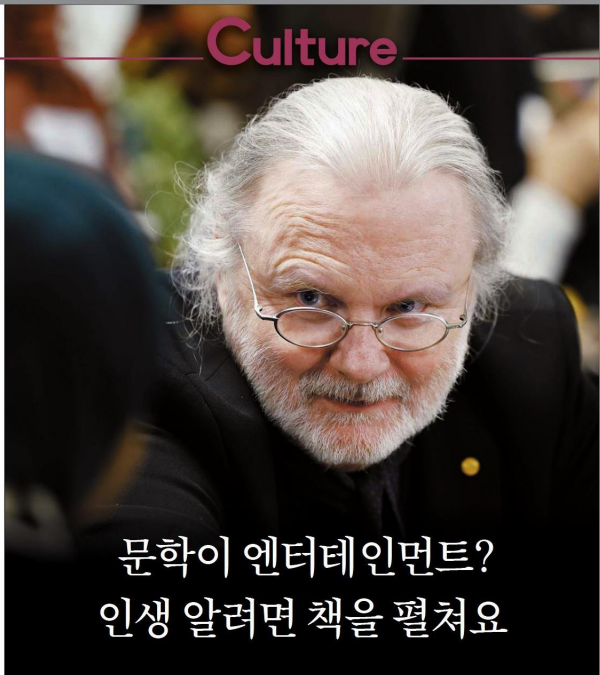
사회 문제를 짚어내는 이야기와 개인의 내면을 탐구하는 이야기로 문학을 양분한다면,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은 포세(69)의 작품은 후자에 속한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가 은 포세는 고독과 허무, 삶과 죽음, 죄의식과 욕망 등 보편적인 주제를 끈질기게 다뤘었다. 1963년 첫 장편 소설 『레드, 블랙』을 냈고, 이후 40년간 현대 희곡과 소설, 시, 아동 문학 등 문학 전 장르에서 90편 이상의 작품을 남겼다.

책장에 비유하자면 포세의 문장은 회색이다. 그의 작품은 평범한 이야기의 내면을 잔잔한 속도로 들여다본다. 은 포세 뿐만 아니라 로이 아를레, 칼 오베크 나우소르, 카린 스미르노프 등 세계적 명성을 얻은 북유럽 작가들의 작품은 만나볼 수 있는 허무의 이야기가 책 전체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공을 들인다. 지난해 10월 스웨덴 한림원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포세의 이름을 호명하며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목소리를 부여한 작가”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그의 작품은 아름다운 운율이 특징이다. 노르웨이 서남부 방언인 뉘노르스카(nynorsk)로 쓰인 그의 작품을 한국어로 옮긴 번역가들은 입을 모아 “장편 소설도 사치란 위한다”고 말했다. “원문을 소리 내서 읽어보면 단순하고 본능적인,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리듬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은 포세를 만났다. 포세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 당시 아예 있었네.
“베르겐의 집 근처에서 운전을 하고



문학이 엔터테인먼트? 인생 알려면 책을 펼쳐요

지난달 26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된 대면 인터뷰에서 은 포세는 “문학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는 감정이 있다”고 했다. [AP·연말뉴스]



오슬로의 한 서점에 노벨상 수상작인 포세의 작품이 진열돼 있다. 홍지영 기자

있었다. 4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국제 전화가 걸려왔다. (46은 노벨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의 국가 번호다) 그때 수상을 직감했다.”
-수상을 기대했나.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라는 얘기가 나온 건 10년도 지난 일이다. 10년 동안 못 받았으니, (노벨상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한편으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전화를 받은 후 반응은.
“(수상을) 믿을 수 없다”고 하자 매츠 말름 스웨덴 한림원 사무총장이 “20년

뒤 정식 발표가 날 테니 직접 확인하라”고 말했다. 집으로 급히 돌아와서 TV를 봤을 때 마침 내 이름이 불렸다.”
-노벨상 수상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티칸 대사관을 통해 교황의 축하 편지를 받았다. 가톨릭 신자인 내게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는 실험적인 스타일로 유명하다.
“아름 직 뮤지션을 꿈꿨고 작곡을 하며 가사를 썼다. 가사를 쓰다가 시를 쓰게 되고, 시를 쓰다가 소설도 쓰게 됐다. 그러니까 내 글의 뿌리는 음악이다. 음

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멜로디와 가사의 반복이 만들어내는 리듬이다. 글도 그렇게 써야 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소설’이라는 평도 있다.

“아침 그리고 저녁은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다룬 소설이다. 인생에서 탄생과 죽음만큼 극적인 사건이 또 있을까?”

-‘미시물리주의의 작가’라는 표현에 동의하나.

“식탁, 연필, 찻잔 같은 단어는 달리 해석될 여지도 없고 번역도 쉽다. 이런 손에 잡히는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념어는 쓰지 않으려고 한다. 쉬운 문장으로도 철학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진심은 단순함에 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목소리를 부여했다는 스웨덴 한림원의 평가에 인상적이다.

“그게 문학의 역할이다. 문학을 통해 어떤 표현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 특히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은 문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장편 소설에도 함축적인 표현이 많아 사나 화자처럼 읽히기도 한다.

“침묵도 언어다. 아백이 있어야 상상할 수 있다. 어쩌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침묵이라는 생각도 든다.”

-다작의 비결은.

“글 쓰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시는 앉은 자리에서 글낸다. 글쓰기는 내 무의식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작업이다. 캐릭터들은 이미 어떤 세계에

숙해 살고 있고 나는 그쪽으로 귀를 기울일 뿐이다. 어떤 면에서 내 글쓰기는 이야기를 만드는 행위(act of making)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행위(act of listening)에 가깝다.”

-재미있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 왜 문학을 읽어야 하나.

“문학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다. 인생을 탐구하기 위해 읽는 것이 문학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탐구하는 데는 문학만큼 탁월한 것이 없다. 좋은 문학에는 진리와 아름다움이 있다.”

오슬로=홍지영 기자
hong.jiyoung@joongang.co.kr

웹툰 삼달리·소년시대… 감동의 OST, 그 뒤엔 ‘개미’가 있다

(본명 강동윤)

“열린공방 살던 세상 이제부터 다 필요 없다/ 눈치보며 살기 싫다 벗어나기 한 판승” (노라조 ‘이판사판’)

지난해 연말 인기를 모았던 쿠팡플레이 드라마 ‘소년시대’를 봤다면 이 노래를 모를 수 없다. 드라마의 메인 OST이자, ‘은양 찰떡이’ 장병태(임시완)가 싸움으로 충청도를 제패한 ‘이산 백호’ 정경태(이시우) 흉내를 내다가 들린 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경으로 사용됐다. 국악과 가타를 접목한 신명 나는 멜로디가 흥미진전한 스토리에 몰입도를 높였다.

‘소년시대’ OST를 총괄한 사람은 개미 음악감독(강동윤·52)이다. 조용필의 명곡을 바탕으로 한 ‘웹툰 삼달리’(UTBC OST)도 그가 맡았다. “소년시대”와 ‘웹툰 삼달리’로 성공적인 연발 연시를 보냈다”는 개미 감독을 지난해 23일 서울 용산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개미 감독에 따르면 ‘소년시대’ OST 노벨문학상을 받은 은 포세와의 인터뷰(중앙일보 2024년 2월7일자 지면)



‘부부의 세계’ 등 30년 음악감독 조용필·올드팝 통해 세대공감 유도
“당시 정서 잘 담아내는 게 내 역할”
예명따라 재미처럼 일 쉬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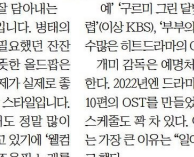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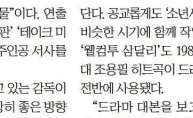
“가장 이상적인 작업물”이다. 연출인 이명우 감독이 ‘이판사판’ ‘태극기 미용’ 등의 작사에 참여해 주인공 서사를 녹여냈다.

“드라마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감독이 OST 작사를 하는 건 굉장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감독이 글 재주가 좋아서 결과물도 마음에 들었어요.”

‘태극기 미용’은 드라마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내용인데, 주인공 임시완이 불러 마무리가 완벽했죠.”

1980년대 후반의 드라마 배경은 개미 감독의 개인적인 향수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개미 감독은 올드팝을 들으며 영상 음악 분야의 일을 꿈꿨

강동윤 음악감독. ■ 1980년대 향수를 부른 ‘소년시대’. ■ 조용필 노래를 소재로 한 ‘웹툰 삼달리’. [사진 디스튜디오와일·모스트콘텐츠]



해 노래했고, 태연은 중간 역할 맡아 세대 간 교류를 강조했다.
1995년 KBS 어린이 드라마 ‘이런 왕자’로 OST에 입문한 개미 감독은 ‘태양의 후예’ ‘구르미 그린 달빛’ ‘응답하라 1988’ (이상 KBS), ‘부부의 세계’(UTBC) 등 수많은 히트드라마의 OST를 맡아왔다. 개미 감독은 예명처럼 쉬지 않고 일한다. 2022년엔 드라마 11편, 2023년엔 10편의 OST를 만들었다. 올해 상반기 스케줄도 꽉 차 있다. 이처럼 ‘열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이 재미있어서”라고 했다.

“정말 재미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드라마 제작 편수가 증가한 덕분에요. 신승훈이 각각 ‘단발머리’ ‘꿈’ ‘추억속의 재회’를 불렀다. 도겸이 젊은 세대를, 신승훈이 기성세대를 위

했다는 걸.

메일을 읽고 눈물이 찔끔 났다. ‘오늘도 디지털 쓰레기를 만들고 있구나’하는 자괴감을 느끼던 시기라 더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 문학 기사의 독자는 한 줄에 불과하지만, 상당수가 ‘배운 분’이었던 것이다. 건방지게 쓰자면, 문화부 독자와 사회부 독자는 차원이 달랐다. 이런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서가 또 있을까?

아름다운 기사를 쓴다는 ‘뽕’

경제부에 있을 때 어느 은행이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쓰면, “퇴직금을 몇억씩 받는 사람을 걱정해 주냐”는 비아냥을 듣곤 했다. 은행을 취재하는 일을 맡았기에 은행 기사를 쓸 뿐인데도 사람들은 ‘기레기가 은행원을 걱정해 준다’고 했다.

사회부 댓글창은 더 심각했다. 댓글이 2000개가 달린다면, 그중 1800개는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윤석열이나 문재인을 욕하는 내용이었다. 기승전 ‘국민의힘’, 기승전 ‘더불어민주당’인 댓글을 읽고있자면 무력해졌다. 공손한 제목을 달고 있지만 클릭해보면 쌍욕이 나오

는 이메일도 부지기수였다. 정치부에 있는 동기 중 한 명은 팬덤이 강하기로 유명한 모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한동안 테러에 가까운 이메일 공격과 신상털이를 당했다.

모두가 그렇고 그런 독자라는 말은 아니다. 댓글을 쓰지 않는 독자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중에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사회부에서도 감사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민원을 처리해 주거나 억울함을 풀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다. 그 또한 보람찬 일이나, 내가 당한 부당해고를 기사화해 줘서 고맙다는 이메일과 아름다운 기사를 써줘서 고맙다는 이메일은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며 문학 기사를 쓴다. 물론 내가 쓴 기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은 그대로다. 아름다운 ‘뽕큐레터’도 더 자주 받고 싶다.

(제목은 장류진 작가의 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가져왔음을 밝힙니다.)

중앙일보 홍지영 기자